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네덜란드 보험시장 재편

□ **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대형 보험그룹들은 그동안 자국 보험시장의 M&A를 주도해 왔으나, 금번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M&A에서 갖는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임.**

o 금융위기로 인해 올해 초부터 일부 네덜란드계 보험사들은 M&A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, 기존 M&A 시장을 주도한 ING, Aegon, SNS Reaal 등은 이들을 인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o 한편, 전통적인 대형 보험그룹 대신 Robein Leven 생보사, 생손보 겸영의 ASR, Delta Lloyd 등은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M&A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.

□ **시장 분석가들은 영국계 Aviva의 계열사인 Delta Lloyd가 최근 Resolution이 영국 보험시장의 재편을 주도하는 것처럼, 향후 네덜란드 보험시장 재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금번 M&A에서도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.**

o Delta Lloyd는 모기업인 Aviva의 주식공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고 발표함.

o SNS는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나, 과거40억 유로 규모의 보험사 인수 사례가 Delta Lloyd의 관심을 끈 것으로 파악됨.

o 또한 정부가 Fortis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한 ASR 역시 Delta Lloyd의 인수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.

□ **한편, 대형 외국 보험사들은 이들 M&A로부터 큰 이득이 얻지 못할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네덜란드 보험시장 재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**

o 프랑스의 Axa, 이탈리아의 Generali 등은 네덜란드 보험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, M&A로 인한 규모의 경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.

o 다만, 1998~2001년 기간 중 네덜란드 보험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알리안츠는 ASR 등의 인수로 인해 생보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M&A 시장에 참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(Reuters, 8/28)